재해사례

로봇 팔레타이저 설비 압착 사망사고

로봇 팔레타이저 설비 압착 사망사고

경상남도 고성군 소재에 있는 식품 제조공장에서 로봇 팔레타이저 팔레트 적재 테스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조치 후 설비를 재가동했으나 내부에서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고있던 근로자의 상반신이 설비에 압착됐다.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과정 중 숨졌다.





<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예시 이미지>

발생원인

◎ 재가동 절차 불명확
- 육안으로 내부 인원 여부를 확인하므로 사각지대 발생
- 여러 명이 점검할 때 타인의 재가동을 막는 작업자 별 안전조치 미흡

◎ 역할 구분 미흡
- 2인1조 작업 시 점검자 / 감시자를 구분하여 진행하지 않음 (추정)

재해사례

로봇 팔레타이저 설비 압착 사망사고

재해예방 대책

◎ Group LOTO 방식 사용

- 점검자가 여러명일 경우 Group LOTO (다중 잠금장치)를 사용하여 설비의 재가동을 제재

◎ 재가동 절차 명확화

- 재가동 전 내부인원 확인 시 육안 확인으로만 판단하지 않고, 작업자 명단과 퇴실 여부 확인, 지정된 담당자가 재가동 등 절차를 수립

◎ 외부 감시자 배치

- 작업 특성에 따라 외부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 진행